

# 프랑스 기업인들의

## 환경투자 인식

프랑스 환경전문지 Environment & Technique와 프랑스 국제환경 전시회인 Pollutec이 환경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환경시장 감독기관인 L'Observatoire du marche de l'environnement가 Pollutec을 방문한 13,000명의 프랑스 기업인들 중 250명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로, 주된 조사 내용은 기업의 환경투자(환경보호, 리스크관리, 안전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임

### 1 산업별 환경투자 프로젝트

응답자의 74%가 이미 1개 이상의 환경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업별로는 금속 및 기계분야가 1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농식품 분야가 90%, 화학 및 준 화학분야가 80%, 자동차산업이 77%로 높았다. 그밖에 제약(71%), 컨설팅(에너지 65%, 화학 62%), 지방당국(59%), 엔지니어링(54%) 분야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 2 환경보호, 리스크 및 안전관리 투자

기업이 환경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사가 환경보호, 리스크 및 안전관리 분야에 활동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환경규정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고 기술개발(40.8%), 시장의 요구(36.4%), 경영자의 신념(33.6%), 바이어 요구(24.8%) 등의 순이었다.

### 3 환경투자 목적

환경 투자 목적 역시 환경규정 준수로 나타났다. '귀사의 환경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50.4%의 기업이 환경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투자한다고 대답하여, 결국 기업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규정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경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향후 사업 진전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투자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40.8%나 되고 비용절감(30.8%), 시장요구(26.4%), 바이어 요구(19.6%)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산업별로 보면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우선시 되는 컨

설팅,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분야는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에 투자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컨설팅,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에는 '시장의 요구'가 최대 목적이었고, 환경 규정은 두번째 요인이었다. 한편 자동차와 공공분야에서는 비용절감이 환경 규정과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 4 분야별 환경투자 프로젝트 비율

기업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환경분야는 오염처리 분야로 나타났다. 주된 환경투자 분야로는 오염처리 43.5%, 리스크 예방 26.0%, 지속가능 발전 25.2%, 에너지/기후변화 22.4%, 자원사용 최적화 16.8%, 재생처리 12.0%, 컨설팅(엔지니어링 포함) 11.2%, 도시와 환경 10.5%, 감독 및 측정분석 10.4%, 운송 및 물류 5.2%, 농촌 및 문화보호 4.4%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별로 투자 우선분야에 차이가 있었는데, 건물관리 및 건축분야와 공공 당국분야에서는 리스크 예방의 중요성이 오염처리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에너지와 화학분야에서는 특히 리스크 예방이 최우선 분야로 지속가능 발전과 오염처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 5 환경 프로젝트 실행 기간

환경 프로젝트 실행 기간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들의 55.3%가 향후 1년 내로 자사의 환경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된다고 답변했으며, 2년 내 실행은 27.8%, 실행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16.9%였다.

#### 6 환경 프로젝트 투자 규모

환경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보면 3만 유로 미만의 프로젝트가 2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포함한 20만 유로 이내의 프로젝트가 62.8%로 대다

수이며, 1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16.6%에 그쳐 환경 프로젝트 투자금액이 아주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 투자액별 비중

- 30,000유로 미만 : 24.0%
- 30,000-75,000유로 : 17.6%
- 75,000-200,000유로 : 11.2%
- 200,000-500,000유로 : 10.0%
- 500,000-1,000,000유로 : 7.2%
- 1,000,000-5,000,000유로 : 8.8%
- 5,000,000유로 미만 : 5.2%
- 무응답 : 16.0%

#### 7 설문 응답자의 구성

조사대상은 250명으로, 이중 87.6%가 기업 내 의사 결정자 였다.

- 엔지니어(31.6%), 기업 경영자(24.8%), 부서팀장(18.8%), 환경관리 책임자(12.4%), 비영리 기관(6.4%), 토지 및 환경 관리공무원(2.8%), 구청장(3.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8 패널의 산업별 비중

응답자의 48.8%는 제조업(농식품, 자동차, 목재, 고무/플라스틱, 화학/준 화학, 조선, 전기/전자, 에너지, 기기, 금속/기계, 광업, 제지, 제약, 석유, 섬유 등)에 27.6%는 서비스업(기업 내 행정, 설계, 보험, 컨설팅, 출판, 부동산, 인쇄, 엔지니어링, IT 등)에 종사하고 건축, 운송과 사외 환경분야가 각각 3.6%, 2%, 1.6%를 차지했으며, 공공당국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의 비율도 10.8%나 되었다.